



1980년 대연사거리 풍경.

## 말달구지, 포니택시… 세월을 건너온 우리의 ‘청마’



김정휘의 스케치로 읽는 풍경

1980년 대연사거리 풍경을 스케치로 옮겼다. 마부의 손에 이끌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말달구지 모습이 꽤 인상적이다.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도로변에 ‘우마차통행금지’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우측면 70~80년대를 풍미했던 포니 택시도 눈길을 끈다. 작고 귀여운 조랑말을 뜻하는 포니(Pony)는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승용차. 아담한 사이즈와 달리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을 세계적 반열로 걸인한 자랑스러운 청마였다.

일본을 가르켜 흔히 ‘토건국가’라고 한다. 끝없이 건물을 짓고 허물고 다시 짓는 우리도 그

못지 않다. 횡단보도 건너편의 건물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 횡단보도 바로 앞으로 도시철도 대연역이 들어서면서 ‘상일가구’와 ‘진화이비인후과’ 간판이 걸린 5층 자리 건물 두 채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옥외간판인 ‘미그린’ 광고는 화장품 업계의 선두였던 쥘리아가 내놓은 여성용 화장품이다. 미그린 광고 아래 일간판 보다 큰 글씨로 적힌 ‘총력안보’ 포스터도 지금의 눈으로 보면 생뚱맞다. 하 수상하던 시절, ‘반공’ ‘멸공’과 더불어 대한민국 담배락을 수놓았던 안보광고 문구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4년 전 추억이다.



2014년 현재의 대연사거리.

### ■ 대한민국 12바퀴 걸어서 여행한 남상범 선생

## 3만km 걷기 고통속에서 만난 이기대·오륙도는 ‘힐링캠프’

“작년만 해도 없었는데 그새 재밌는 게 생겼네.” 대마도가 손에 잡힐 듯 뵈어 보던 지난 10일, 오륙도스카이워크가 흥미로운 듯 남상범 선생이 말을 꺼냈다. “자연 훼손을 최대한 줄이고 바다경관을 자원화하는 아이디어는 나도 찬성이야.”

선글라스에 두툼한 등산화, 등산복, 스틱, 배낭 등 그의 일수는 이날 스카이워크를 찾은 관광객들 가운데서도 단연 눈길을 끌었다. 선생은 걷기에 있어서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12바퀴 그것도 걸어서만 여행했다. 거리로 3만km에 달한다. 올해 그의 나이는 83세. 이기대 해안길과 오륙도는 그가 함에 부칠 때 희망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 했다. 도보여행가 남상범 선생의 걷기여행과 우리 남구에 얹힌 사연을 들어봤다.

—대한민국 12바퀴, 3만km를 걸었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는다.

2005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루 평균 30~40km를 걸어서 여행했다. 국토 한 바퀴가 2500km쯤 되는데 짧게는 3개월, 길면 8개월 정도가 걸린다. 한 번은 동쪽, 그 다음에는 서쪽으로 출발하는 방식으로 8년이 걸렸다. 도선을 타고 50개가 넘는 서해도서의 해안길도 마름질 따듯이 걸었다. 이것까지 합하면 지구 한바퀴는 족히

걸었다. 8년간 걸으면서 찍은 사진들 20만 장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매일 작은 여행기는 허리 높이만큼 높게 쌓였다.

—서울에 사진과 들었다. 우리 남구에 는 어떤 일인가

오륙도는 동해와 남해가 갈리는 분기점이다. 또 2500km 국토순례의 중간 경유지이다. 긴 여행 중에 짐을 부리고 휴식을 취하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이때는 꼭 일주일 가량 오륙도가 보이는 해군회관에서 머문다. 마음이 심란할 때도 종종 찾는다. 아마 20년 넘게 왔으니 이쯤되면 나도 남구민이 다 된 셈이다.

### 동에서 서로, 서에도 동으로 8년간 국토 해안길 여행

### 남구에만 20번 들러… 길에서 만나 가족이 된 주민들

—걷게 된 사연이 있다.

평소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우연히 ‘나는 걷는다’라는 책을 서점에서 발견했다. 프랑스의 전직 신문기자가 4년에 걸쳐 옛 실크로드를 걷은 여행기인데 나도 그 사람처럼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다. 병원에서 체력을 재보니 나이는 70대인데 몸은 30대라는 진단이 나왔다. 주저할 것도 없이 며칠 뒤 배낭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남구가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 하니 조금 머쓱하다

오륙도와 이기대 해안산책로는 전 세계 어디에 나봐도 손색없는 천혜의 관광지이자 국내 최고의 산책길이다. 8년간 전국의 바닷길을 실패 감듯이 걸어봐서 잘 안다. 물론 서해나 동해의 해안길도 풍광명미하지만 일반인이 찾기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오륙도, 이기대를 오아시스로 비유한 건 풍치도 좋지만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서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

걷기여행은 돈, 체력, 모험심만 있어 되



남상범 선생이 지난 10일 오륙도 등대가 훤히 보이는 해안길에서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남 선생이 해군회관 숙소에서 두 해전 걸었던 국토 11바퀴 코스를 표기한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 의문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걸으면 몸과 마음에 해방감이 들어 뿌리칠 수가 없다. 걷기는 마약과 비슷하다.

—걷기가 왜 중요한가?

걷기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철학이자 깨달음의 여정이다. 걸으면서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계속 걷다보면 어느 순간 온갖 영감과 아이디어들이 머리에서 분출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물론 두 번의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모두를 여행 도중에 분출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물론 두 번의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모두를 여행 도중에 분출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특별 정책을 입안하는 이들에게 걷기를 꼭 추천한다. 아이디어를 짜내지도 말고 저절로 터져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수많은 에피소드를 겪으셨을 것 같다

“뱀발에 빠진 적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해변을 걷다 썰물에 갇혀 죽을 뻔한 적도 부지기수다. 한겨울 강원도 철쭉산을 걸을 때는 숙식을 해결 못해 동태가 되기도 했고 여천 불랑배에게 곤욕을 치른 적도 있다. ‘이 나이에 왜 이런 고생을 사서

### ■ 남구를 빛낸 문화·예술인

## 피난시절 갖은 애환 강렬한 붓질에 스며



③ ‘문현동 풍경’ 이종섭

이종섭은 1916년 4월 10일에 평안남도 평원군 송천리에서 부농 이희주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평양 종로공립보통학교와 오산고등보통학교에서 본격적인 미술을 배웠다. 그는 동경 테이코쿠 미술학교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카 가쿠엔에서 그림공부를 하였다. 자유미술가협회 제2회 공모전에서 협회상

을 받았는데, 그 때에 부인인 마사코를 만났다. 동경과 경성에서 열린 자유전에 ‘서있는 소’, ‘망월’이 호평을 받은 후, 제7회 자유전에 ‘망월’, ‘소와 소녀’, ‘여인’을 출품하여 특별상인 태양상을 받아 정회원이 되었다. 해방 직전에 이남덕으로 개명한 미술사조와 원산에서 결혼하였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자, 부산으로 피난 와서 우암동의 소막에서 거주하다가, 12월 초에 범일동의 창고에 거처를 정하여 부두에서 노동을 하며 끼니를 이었다. 1951년에 제주도 서귀포에 가서 고구마와 게를 먹으며 1년 간 지내면서, 소년, 물고기와 게가 있는 그림을 그렸다. 그해 12월에 다시 부산에 돌아와 오산학교 동기의 덕분에 범일동에 판잣집에서 살았다. 잠시 종근작가로 일하였으나, 1952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다가 부인과 두 아들을 일본에 보내고, 그때부터 언제나 화목한 가족들과 달리 ‘문현동 풍경’은 가난한 천재였던 작가가 시대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다. 그런데 1996년 제주도 서귀포시는 겨우 그가 1년 동안 거주했던 집을 복원하여 ‘이종섭기념관’과 ‘이종섭 거리’를 만들었는데, 3년 동안 거주했던 부산은 그의 흔적을 모른 채 하고, 문화, 예술에서 항상 남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 안타깝다. 천재 이종섭은 전쟁과 문화에 반풍수였던 지식 무도 인간적이고 천진한 위인이었다.

부산에서 ‘기조동인’을 결성하고 르네상스 다방에서 전람회를 열었고, 1955년에는 서울 미도파갤러리에서 개

인전 개최하여 유화와 은박지 그림을 비롯한 소묘 등이 호평 받았으나, 은박지화는 춘화로 철거되고, 그림 값까지 떨어 빈털터리가 되어 비판하였다. 나머지 그림은 구상의 권유로 대구의 미국공보원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나, 영양 부족과 극도의 쇠약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다가, 끝내 1956년 9월 6일 41세 나이로 영양실조와 간염으로 작고하여 망우리에 안식하고 있다. 그의 사후에 뉴욕 모던 아트 뮤지엄(Modern Art Museum)에는 은박지화 3점이 소장되었고, 1978년에 문화훈장이 수여되었다.

1953년 피난시절, 그가 부산 범일동 산동네에서 살면서 친구가 있는 문현동에 자주 놀러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골목길 풍경을 그린 것이 ‘문현동 풍경’이다. 그림 속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던 산동네의 어느 골목이었을 것이다.



이종섭의 ‘문현동 풍경’.

### 한국전쟁때 우암동 소막에서 거주

### 문현동 놀러다니며 스케치로 옮겨

래에 집 두 채가 있다. 한 판잣집의 창가에는 팔을 힘없이 내려놓고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두고 온 고향이나 전쟁에서 소식도 없는 부군을 그리는 모습이다. 그 뒤의 돌담장이 있는 집에 정답게 있는 부부와 대비된다. 골목길에서는 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들이 한쪽을 하는지 엉겨 붙어 있다. 화가의 눈에 남북 간의 동족상쟁의 전쟁이 두 아이가 싸우는 꼴과 같이 보였을 것이다. 이종섭은 가난, 불신, 무시 등의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불후의 걸작을 남겼다. 그의 대표작인 그림의 소재인 소, 소녀, 게와 달과 달리 ‘문현동 풍경’은 가난한 천재였던 작가가 시대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다. 그런데 1996년 제주도 서귀포시는 겨우 그가 1년 동안 거주했던 집을 복원하여 ‘이종섭기념관’과 ‘이종섭 거리’를 만들었는데, 3년 동안 거주했던 부산은 그의 흔적을 모른 채 하고, 문화, 예술에서 항상 남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 안타깝다. 천재 이종섭은 전쟁과 문화에 반풍수였던 지식 무도 인간적이고 천진한 위인이었다.

부산에서 ‘기조동인’을 결성하고 르네상스 다방에서 전람회를 열었고, 1955년에는 서울 미도파갤러리에서 개

산다라 물 따라

## 산행을 떠나요



〈2014. 2.〉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산산악회	9(일)	황령산 시산제	010-9879-0702
	대오산우회	9(일)	충북 소백산 비로봉	010-2559-2086
	천안산악회	12(수)	전남 구례시 오산	010-6778-3192
	약천산악회	19(수)	사천 와룡산	010-4655-4370
	용산산악회	23(일)	거제 가라산	010-3586-6161
용호동	용호산악회	23(일)	영덕 봉이산	010-2593-0361
	제일산악회	자율 산행	자율 산행	011-594-4192
	여명산악회	2(일)	경주 남산, 구룡포	010-3554-4392
	환경산악회	자율 산행	자율 산행	010-3575-3448
	용신산악회	9(일)	전남 병풍산	011-488-3307
	다산산악회	자율 산행	자율 산행	010-3870-2660
	금강산악회	자율 산행	자율 산행	010-3865-9051
	21C산악회	9(일)	경북 소백산	010-6266-8525
	부산산악회	9(일)	울진 백암온천 백암산	011-576-2729
	청산산악회	9(일)	순천 금전산	010-8008-2087
용당동	한마음산악회	9(일)	노고단 화엄사	010-9324-3424
	한울타리산악회	9(일)	산형 집현산	010-7650-1984
	씨산악회	산행 없음	산행 없음	010-2334-4605
	문화산악회	23(일)	전북 덕유산	016-564-8882
	용마산악회	9(일)	개별통보	010-4433-8809
감만동	녹색산악회	23(일)	경남 통영 덕유산	010-3595-7692
	글로벌산악회	16(일)	지리산 노고단	010-8287-1192
	우남산악회	16(일)	김천 수도산 시산제	010-7520-6666
우암동	우암산악회	자율 산행	자율 산행	010-3557-2847
	한울산악회	9(일)	남덕유산	010-9620-7194
	우암산악회	23(일)	남덕유산	010-6578-0488
	문산산악회	9(일)	대구 팔공산	019-558-2828
	문현산악회	9(일)/23(일)~24(월)	삼랑진 만어사대미도	011-9544-3434
문현동	문현2산악회	9(일)	다양 구인사	010-3178-3065
	문현산우회	16(일)	영양 월출산	010-6706-1255
	월부리산악회	16(일)	거제 도자산 시산제	010-4564-7769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